

《한국 고대 제철도구 자료 집성》
용역 결과보고

2020년 12월 10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 차 》

I. 연구진행 개요

II. 연구의 결과

III. 몇 가지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 첨부 : 1. 국내 유적 출토 단야구에 대하여
- 2. 참고문헌
- 3. 자문의견서
- 4. 제철도구 자료 집성표(엑셀)

I. 연구 진행 개요

1. 사업개요

1) 사업명 : 제철도구 자료집성 학술연구용역

2) 사업목적

- (1) 국내 제철도구 자료집성 및 연구자료의 일원화
- (2) 체계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통한 제철기술 문화연구 활성화

3) 사업기간 : 계약일(2020년 6월 5일) ~ 2020년 12월 10일

4) 소요예산 : 금 2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용역추진주체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이남규)

6) 용역추진방식 : 수의계약(예산과목 : 1200-1236-302-210-13)

2. 사업내용

- 1) 연구대상 : 제철 관련 유적 출토 고대 제철도구
- 2) 연구내용 : 고고 유적 현황조사 및 고대 제철도구 집성
* 영남지역 분묘 출토품은 별도 작성
- 3) 연구진 구성 :
 - 책임연구원 : 이남규(한신대학교 명예교수)
 - 연구원 : 차순철(서라벌문화재연구원)
 - 보조원 : 양경민(한신대학교 대학원생)
강정무(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3. 기대 효과

- 1) 국내, 외 철생산과 관련된 유적 및 생산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자료로 활용
- 2) 제철자료 집성을 통한 향후 연계 연구 기초자료 활용
- 3) 국외자료와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4) 향후 문화재복원을 위한 전통철물 생산에 활용

4.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 기본조사 내용을 엑셀(EXCEL) 형식으로 작성
- 2) 최종보고서 납품 전에 과업 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
- 3) 제출 내역
 - (1) 결과보고서(A3) 3부
 - (2) 결과보고서 PDF 파일이 수록된 USB 1, DVD 3

5. 추진일정

표 1. 추진일정

내 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획 보 고							
계 약 체 결	5일						
착 수 보 고	11일 착수보고			7일 중간보고			
용 역 수 행							
결 과 보 고							2일 최종보고
완 료 계 제 출							10일

II. 연구의 결과

1. 제철도구 자료 집성의 개요

1) 전체현황

200 개소 (1029 기)	집게	망치	모루	착	참	기타	탕도	송풍관		거푸집							도가니		돌망치	돌모루	지석	기타		
								대구경	소구경	주조괘이			완	솔	탁	봉	불명	기타					뚜껑	도가니
										뒀범	판범	범심												
합계	17	10	5	87	11	233	38	2053	296	442	207	200	0	227	2	0	47	38	1	27	21	52	201	14

철기류	363	봉 용범	0
송풍관	2349	불명	47
탕도	38	기타	38
주조괘이 용범	849	도가니	28
솔 용범	227	석제품	288
탁 용범	2	합계	4229
완 용범	0		

2) 제철도구 자료 집성 세부현황

지역	개소	집게	망치	모루	착	참	기타	세부 내용	탕도	송풍관		거푸집										도가니		세부 내용	돌망 치	돌모 루	지석	기타
										대구경	소구 경	주조괘이			완	솔	탁	붕	불명	기타	뚜껑	도가 니						
												뒀범	판범	범심														
강원도 (영동)	19 개소 (49 기)	2	0	0	6	1	0		0	7	65	0	0	0	0	0	0	0	0	1	0	3		0	8	24	0	
강원도 (영서)	16 개소 (27 기)	0	1	0	14	1	0		0	0	21	0	0	1	0	0	0	0	1	1	0	1		3	0	8	0	
강원지역 소계		2	1	0	20	2	0		0	7	86	0	0	1	0	0	0	0	1	2	0	4		3	8	32	0	
서울특별시 · 경기도	46 개소 (181 기)	6	4	0	36	7	1		0	266	73	7	0	1	0	0	0	0	0	14	0	5		3	6	31	5	
서울, 경기 소계		6	4	0	36	7	1		0	266	73	7	0	1	0	0	0	0	0	14	0	5		3	6	31	5	
충청북도	32 개소 (196 기)	4	4	0	22	2	1		0	749	34	19	0	0	0	0	0	0	0	1	0	4		0	6	13	3	
충청남도	7 개소 (10 기)	0	1	4	0	0	0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청지역 소계		4	5	4	22	2	1		0	758	34	19	0	0	0	0	0	0	0	1	0	4		0	6	13	3	
경상북도	45 개소 (311 기)	0	0	1	4	0	60		38	647	59	413	207	198	0	80	0	0	43	21	0	3		6	29	77	3	
경상남도	26 개소 (234 기)	2	0	0	5	0	167		0	375	43	0	0	0	0	132	2	0	3	0	0	1		9	3	39	2	
경상지역 소계		2	0	1	9	0	227		38	1022	102	413	207	198	0	212	2	0	46	21	0	4		15	32	116	5	
전라북도	5 개소 (9 기)	0	0	0	0	0	4		0	0	1	0	0	0	0	15	0	0	0	0	0	0		0	0	0	1	
전라남도	4 개소 (12 기)	3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1	10		0	0	9	0	
전라지역 소계		3	0	0	0	0	4		0	0	1	3	0	0	0	15	0	0	0	0	1	10		0	0	9	1	
	200 개소 (1029 기)	집게	망치	모루	착	참	기타		탕도	송풍관		거푸집										도가니			돌망 치	돌모 루	지석	기타
합계		17	10	5	87	11	233		38	2053	296	442	207	200	0	227	2	0	47	38	1	27		21	52	201	14	

2. 제철도구 자료 집성표(엑셀)

* 첨부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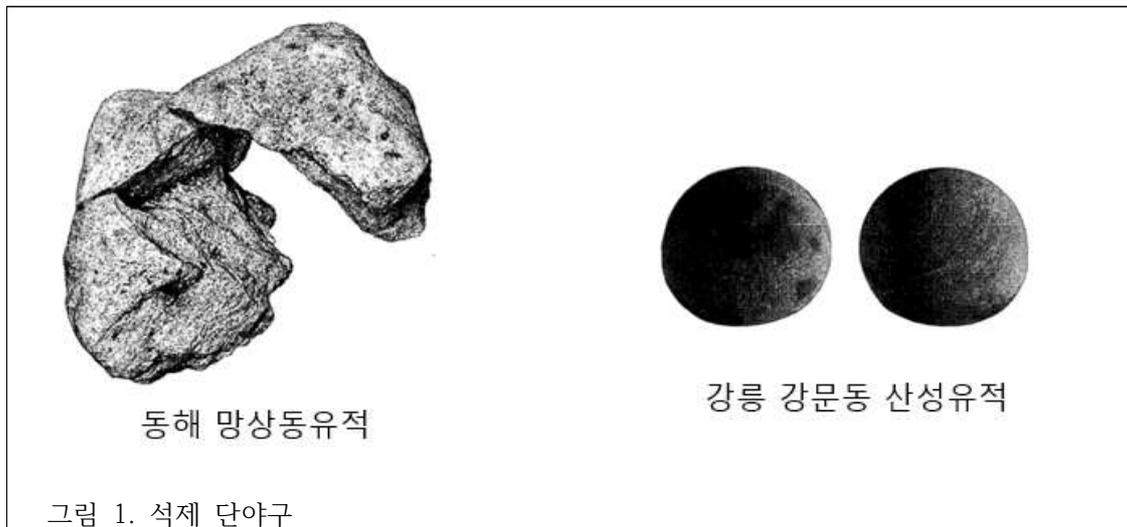
Ⅲ. 몇 가지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제철 및 철기문화가 대단히 발달한 나라로서 여러 시대의 제철유적이 전국 각지에서 속속 발굴되어 현재 그 수가 30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유적들 상태는 생산유구의 일부만 남거나 전파(全破)되고 일부 유물만 폐기장에 버려지거나 주변 유구에 재퇴적된 채 발견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의 제철 관련 도구들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곤란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제들 중 석제도구, 송풍관, 용범, 도구 명칭과 관련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기타의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 몇 가지 문제점

1) 석제 단야구의 문제



적어도 삼국시대의 유적들에서는 집게, 망치 및 모 등 기본적인 철제 단야도구들이 모두 발견되었으나 원삼국시대의 경우는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소형의 망치 이외에는 단야 관련 철제도구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삼국시대의 단야도구로 석제 망치와 모루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고¹⁾ 실제로 여러 유적들의 발굴보고서에서 타격흔과 피열흔이 있는 석제품들을 단야구로 보고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성에 있어 그렇게 보고된 석기들 중에 단야도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사례들도 있었으나 일단 포함을 시켰으며 지식의 경우는 단야구와 공반된 경우의 것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勒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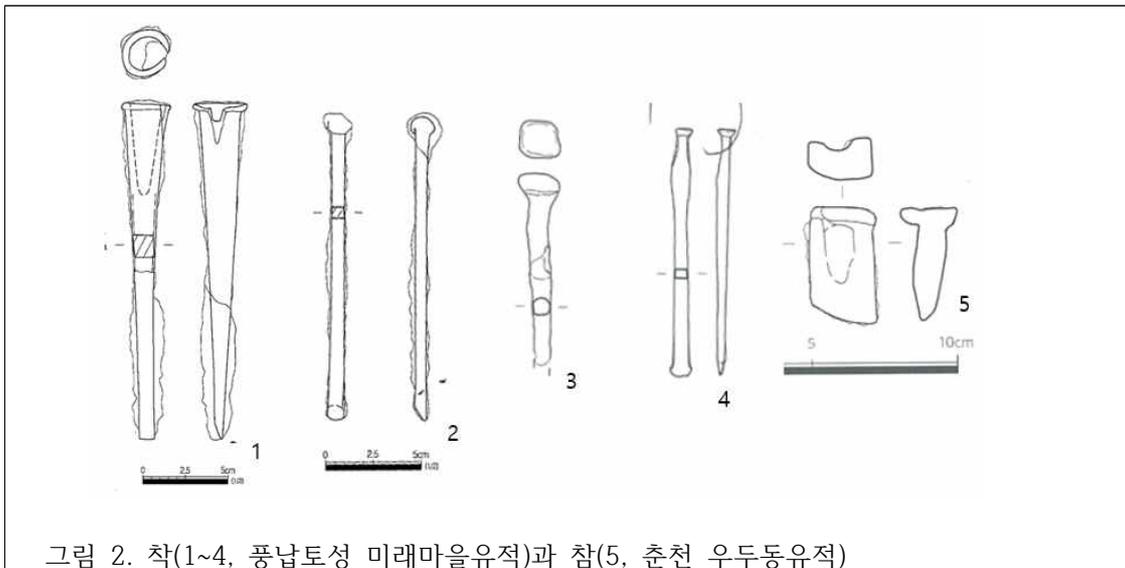
차후 이러한 석제도구들이 단야구인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실사와 실제적인 단야실험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송풍관, 도가니의 인정 문제

첨부한 자문의견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릉 강문동유적, 춘천 근화동유적, 가평 향사리유적 등의 보고서에서 송풍관으로 보고된 유물들은 연구자에 따라 그 성격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작성자의 입장에서 자문위원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일단 자료에 포함시켰다.

동해 송정동유적, 원주 가현동 및 서울 풍납토성 미래마을 등에서 출토된 도가니의 경우는 형태 및 크기 등의 유물 성격과 출토 맥락에서 보았을 때 주조철기 제작용으로 보기 어렵고 유리 등이 다른 기물 생산용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 자료집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유물들에 대해서도 차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도구 명칭의 문제



발굴보고서들에서 단야도구 가운데 착(鑿)과 참(鑿)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두껍고 날이 길며 두부(頭部)가 타격에 의해 뭉툭해져 있는 것은 참, 양인(兩刃) 혹은 편인(偏刃) 이면서 세장한 형태의 것을 착으로 구분하였다. 착 중 상당수는 목공용일 가능성이 있으나 단야작업 중 세공용으로도 볼 수 있어 포함시켰다²⁾.

2) 이는 이영구 단야장과 이은철 제철·도검장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였다.

현재 원삼국시대의 단야도구 중 집게가 불확실한 상태인데 강릉 병산동 A-3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제품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제작중인 철기를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게에 포함시켰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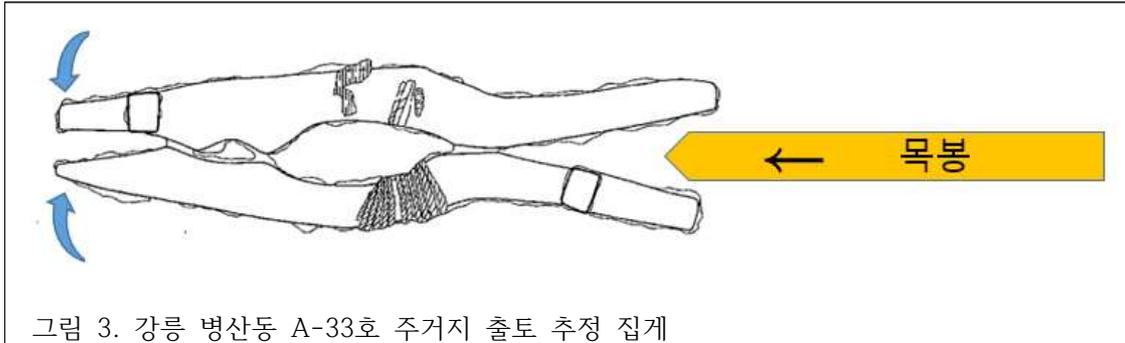


그림 3. 강릉 병산동 A-33호 주거지 출토 추정 집게

한편 주조팩이 용범의 명칭을 내범과 개(蓋)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철기 주조시 용범을 세워놓고 용탕을 두부쪽에서 주입하기 때문에 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 또한 모두 단합범들이어서 한 쪽은 단면이 凹형을 다른 한 쪽은 一 자형으로 되어 있어 요범(凹范)과 판범(板范)으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주조팩이와 용범(경주 황성동유적)

3) 이은철 야장의 자문에 의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으로서 현재도 그와 유사한 집게도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4) 유물 개체수의 문제

이번 작업을 통해 총 4200여점의 제철 관련 도구들이 집성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송풍관편과 용범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개체수는 이보다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의견에서 최소개체수의 제시방법 모색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차후에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유물 시기의 설정문제

발굴보고서들에서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를 시대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유물의 시대를 원삼국~삼국으로 표현하거나(예를 들어 중도의 범심 등) 3~5세기로 기술한 경우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또한 강원도지역의 유물들 중 시기가 내려오는 것들이 상당히 있으나 경질무문토기와 공반하는 경우는 원삼국시대에 포함시켰다. 또한 중세와 고대의 구분이 불확실한 경우(천안 연곡리유적)은 일단 보고서의 견해를 따랐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의문부호를 병기하였다.

6) 보고서 출간 부실 건

중요한 제철 관련 유적이면서도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정식으로 발간되지 않은 경우들(화성 기안리유적, 연천 삼곶리유적, 천안 연곡리유적 등)이 일부 있어 조사 내용을 충실히 수합,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음을 밝혀둔다.

7) 기타

1차자료들을 일일이 찾아내고 파악하기에는 자료양이 결코 적지 않았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하여 누락된 부분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추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호 원거리에 위치한 공동연구자들 간에 소통과 논의가 다소 부족했고, 중요 유물의 실견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웠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 같다.

2. 향후의 과제

이러한 집성자료에 기초하여 향후 아래와 같은 후속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원삼국시대 석제도구 관련

대상 유물의 정밀한 실견, 석재종류의 파악, 세부 사진 촬영, 변형상태 파악, 석제도구를 이용한 단야실험 실시 등을 통해 석제도구로 철기의 제작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2. 송풍관과 용범의 최소개체수

자문위원들의 지적 처럼 대다수를 차지하는 송풍관이나 용범은 대부분 편들이어서 그 최소개체수의 추정이 필요하며, 차후 분류기준의 설정 및 세부 속성의 파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도가니의 제철용 여부

기존에 제시된 도가니편들은 제철용이 아니고 다른 용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4. 도구 명칭 문제

개념에 혼동이 있는 단야구 등의 도구 판단에 있어 한·중·일의 고대 제철도구들 명칭을 비교검토하면서, 그 용어(특히 착, 용범)를 확실히 정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만큼 분류체계의 확립도 필요하다. 아울러 그러한 도구들을 복원제작하고 직접 제철실험에 사용해봄으로써 그 기능적 특성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병산동 A-33호 주거지 추정 집계가 중요한 우선적 실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5. 유적·유물 시간성의 문제

제시된 제철도구들의 시대 및 시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적지 않은 만큼 공반유물을 포함한 다각적 검토에 기초하여 시대 및 시기구분의 모호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6. 분석을 통한 재질의 파악

제철도구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철제도구들은 금속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탄소함량과 강도 등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토제품의 경우는 성분 및 소성도 분석을 실시하고, 석제품은 석재 종류의 감별이 요구된다.

7. 부실보고자료의 확인

일부 중요한 유적의 발굴보고서가 부실한 상태이거나 아직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들은 별도의 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정식보고서의 발간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8. 제철도구 전시개최와 한국제철사박물관의 건립

다종다량의 제철도구들을 수합하고 분석 연구하여 종합적인 전시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후 이를 기초로 하여 적정 규모의 한국제철사박물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지역은 충주지역이 적당).

9. 제철도구 연구의 세계화

이번 자료집성 작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이 분야 연구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 여러지역의 연구자들과 연계한 세계적 차원의 제철도구 비교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첨부 : 1.

국내 유적 출토 단야구에 대하여

차순철(서라벌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의 한국고대제철도구 집성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내 유적 출토 단야구 조사결과 원삼국(낙랑)~조선시대의 고분, 생산유적, 생활유적 등에서 시기별로 다양한 단야구가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을 국내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고구려의 경우 중국 지역 내 소재한 유적들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단야구는 금속을 열처리하고 가공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도구로 망치, 집게, 모루를 기본도구로 하며, 마연 및 천공, 절단작업 등에 사용되는 끌, 줄 등이 보조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들 도구가 모두 일괄로 발견된 사례는 드문편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중 일부만 공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구의 소재는 돌망치, 모루돌처럼 일부 석재가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철제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용해 등을 통해서 재료로 재사용이 가능한 점은 실제 도구가 남아있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

단야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례는 원삼국~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까지 약 200여개 유적에서 그 출토사례가 알려져 있다. 이들 단야구는 당시 철생산과 관련된 대장장이[冶匠]의 존재를 알려줌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구분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시기별로 단야구가 확인된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시기별 단야구 출토 유적

낙랑	원삼국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고구려	백제(마한)	신라	가야			
4	14	3	39	92	23	16	5	4

이들 유적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삼국시대에는 주거유적이거나 생산유적과 관련된 사례가 확인되지만, 삼국시대부터는 대부분 고분유적이 중심을 점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일부 유적에서 출토된 집게로 추정된 유물은 단야작업보다는 금공작업 등에서 사용된 족집게와 같은 도구로 추정된다. 다만 이런 도구의 경우에는 과대금구의 장식으로도 사용된 것이기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고구려의 경우 서울 한강변에 마련된 보루성을 중심으로 출토사례가 확인되는데,

당시 군 병영시설 안에 공방을 마련하고 철기를 수리하거나 제작했음을 알려준다. 서울 구의동유적의 경우에 내부에서 다량의 철기가 출토되었는데, 다 수를 점하는 철촉의 경우에는 화살대를 결합하지 않은 채 보관을 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의 오녀산성에서 출토된 철기매납유구의 사례로 볼 때, 반제품을 보관하다가 필요시 완성품으로 만들던 고구려의 철기제작방법의 한 모습을 알려준다.

백제의 경우 도성 내 공방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점은 당시 도성 내 철생산과 관련된 전업공방의 존재를 알려주지만,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내부에서 용해작업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철정과 같은 철소재 또는 완성된 철기를 도성 안에서 사용하면서, 수리하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개발과 관련해서 조사된 백제 석실분 안에서 여러 점의 단야구가 발견되었지만 주로 집게가 확인된다. 이러한 집게만 부장된 사례는 신라 황남대총 북분의 사례처럼 철기 생산보다는 생산조직을 관리하던 인물의 모습을 알려주는 사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마한지역으로 보는 완주 상운리유적은 주변에서 철생산 관련유적이 조사되지 않았지만, 유적 내 여러 기의 고분 안에서 많은 단야구가 출토되었다. 또한 주거지에서는 석제 동축용범이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철소재를 이용하여 철기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주변에 공급하던 공인들과 관련된 유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고분에 부장된 단야구를 위세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으므로 무덤에 부장된 단야구는 실제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많은 단야구가 출토된 완주 상운리의 피장자는 철생산과 관련된 공인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신분이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경우 경주 시내 고총고분이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 금령총 등에서 집게와 출토되었지만, 부장유물을 구성하는 일부일뿐 철생산과 관련된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경주 시내외곽 및 울산, 경산, 대구, 김해, 창녕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 위치한 중, 소규모 고분군 안에서 확인된 단야구들은 그 지역 안에서 활동하던 대장장이로 보여진다. 일부는 환두대도를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망치, 집게, 모루를 모두 갖춘 사람도 확인되므로, 지방에서 철소재를 가지고 철기를 직접 생산했던 공인들로 볼 수 있다. 그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경주지역 안에서는 단야구의 출토사례가 적고, 지방으로 갈수록 출토사례가 높은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신라가 철생산 및 도구제작에 있어서 일정량을 지방에 나눠주고 생산된 제품만을 왕경이나 필요한 곳에 직접 공급하는 모습의 유통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생각된다. 즉 삼국시대 초기에 경주 황성동유적처럼 왕경 안에서 더 이상 철기생산을 할 필요가 없이 철광산이나 철소재를 유통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철기생산작업을 했으며, 이러한 모습은

신라가 울산, 경산, 대구, 김해, 창녕지역과 같은 지방세력을 통해서 직접 철기의 유통관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가야는 김해와 고령을 중심으로 마산, 부산, 산청, 의령, 함안, 합천 그리고 전라북도 장수 등 여러 지역에서 단야구의 출토사례가 확인된다. 하지만 유적의 집중도로 볼 때, 김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철생산의 거점임은 분명하며, 고분에서 출토된 단야구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장장이의 존재를 보여준다. 하지만 부산 복천동고분군에서 확인된 단야구는 대형분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볼 때, 피장자가 공인이기보다는 신라의 사례처럼 지역 내 수장으로 이러한 철생산을 관리하던 인물에게 상징적으로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비교할 때 차이를 보여주는데, 두 집단 사이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경상남도 산청과 전라북도 장수지역에서 발견된 단야구는 생활유적과 분묘유적 출토품으로 지리산을 경계로 가야와 백제 사이에 이루어진 철 교역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되며, 최근 부여 관북리에서 조사된 대형 건물지에서 대가야계 토기가 발견된 사례는 백제와 대가야사이에 철을 매개로 이루어진 밀접한 관계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통일신라시대에 단야구가 출토된 유적은 생활유적과 사찰 등으로 왕경 안에서 다수 확인된다. 사찰 안에서 발견된 단야구는 사찰내 공방의 존재와 운용모습을 알려주는 점에서 과거와 구분되는 모습이며, 경기도, 충청도 지역 산성에서 발견되는 단야구는 산성 축조와 관련된 공방의 존재 혹은 산성 내 병영 안에 마련된 철공방의 존재와 연관된다.

고려시대 단야구는 주로 사찰 안에서 확인되며, 충주 영평리 무태골1 유적 1지점 3호 석곽묘는 당시 대장장이로 추정되는 인물의 무덤으로 목관 안에 단야구가 함께 부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해당 지역내 공방을 관리하던 관인(官人)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단야구는 그 출토사례가 적지만 산성, 사찰, 철생산 공방 등에서 확인되므로 실제 공방에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 첨부 : 2. 참고문헌

가경고고학연구소, 2012, 『천안 입장 연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천안 입장 연곡리유적』, (재)가경고고학연구소 문화유적조사보고 제9책

江陵大學校博物館, 1998, 『江陵 橋項里 住居址』, 江陵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20冊.

江陵大學校博物館, 1984, 『襄陽郡 柯坪里 住居址 發掘 調査 報告書(I)』.

江陵大學校博物館, 2011, 『江陵 安仁里 住居址』, 김무중, 2015, 「江原 嶺東地域 鐵器生産」, 『友情의 考古學』, 진인진.

江陵原州大學校 博物館, 2012, 『江陵 柄山洞遺蹟 -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本文』, 江陵原州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49冊.

江陵原州大學校 博物館, 2012, 『東海 松亭洞遺蹟 -동해 송정동 중심도로 건설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陵原州大學校博物館 學術叢書 47冊.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1, 『東海 松亭洞聚落 I -동해 송정 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10冊.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2, 『東海 池柯洞聚落 -고속국도 제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제3, 4공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18冊.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2, 『平昌 泉洞里 · 馬池里 聚落 - 영월~방림(2)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매장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16冊.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8, 『江陵 柄山洞 聚落 II -강릉 병산동 320-2번지 일원 개간사업(과수원)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59冊.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13, 『華川 居禮里 遺蹟 -4대강(북한강)살리기 내 화천 거례리1지구 유물산포지3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財研究院 學術叢書 26冊.

강원고고학연구소, 1998, 『횡성 화전리 청동기 · 철기시대 집자리유적』.

江原文化財研究所, 2006, 『江陵 柄山洞 住居址 강원 병산동 320-3번지 내 유적』,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55冊.

江原文化財研究所, 2006, 『春川 牛頭洞 707-1, 35番地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49冊.

江原文化財研究所, 2007, 「동해 송정동 621-2번지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江陵

草堂洞遺蹟Ⅲ』.

江原文化財研究所, 2008, 「화천 위라리 123번지 내 유적 시굴조사」 『2006-2007년도 소규모 발굴비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江原文化財研究所, 2010, 『洪川 哲亭里 II遺蹟 (A地區)』.

江原文化財研究所, 2011, 『原州 加峴洞遺蹟 -국군원주병원 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寫眞·附錄』,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111冊.

江原文化財研究所, 2011, 『平昌 泉洞里 220번지 遺蹟 -평창 천동리 220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109冊.

江原文化財研究所, 2013, 『三陟 湖山里遺蹟 -삼척 호산리 LNG 사업단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128冊.

江原文化財研究所, 2013, 『三陟 湖山里遺蹟 -삼척 호산리 LNG 사업단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128冊.

겨레문화재연구원, 2011, 『가평 대성리유적Ⅱ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구간 제 4공구내 사·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 4책.

京畿道博物館, 1999, 『坡州 舟月里 遺蹟 -'96·97 京畿道博物館 遺蹟調査地域 第1冊』.

京畿文化財研究院, 2007, 『華城 旗安里 遺蹟 -풍성아파트 건립부지내 유적 시·발굴 보고서-』, 學術調査報告 第88冊.

京畿文化財研究院, 2007, 『華城 發案里 마을 遺蹟 -본문1-』, 學術調査報告 第81冊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加平 大成里遺蹟 -京春線複線電鐵 事業區間(第4工具)內 發掘調査 報告書-』, 學術調査報告 第103冊.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늑도패총 -A지구, 주거군-』.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늑도패총Ⅱ -A지구, 주거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외, 2011, 『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내 산청 하촌리유적-I 지구-』.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경주 황성동 유적Ⅲ, Ⅳ』.

경상남도, 전북문화재연구원, 2019, 『밀양 무안-내이(1)간 도로확장공사 내 밀양 정곡리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외, 2012, 『김해 생림-상동간 도로건설구간 내 김해 우계리유적』.

경상문화재연구원 외, 2011, 『거창 정장리 유적 -거창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 조성부지내 발굴조사-』.

경상문화재연구원 외, 2011, 『하동 동산리유적』.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5, 『경주 황성동 590번지 유적 V -공동주택부지 D, E구역 내』.
- 계명대학교박물관, 2000, 『경주 황성동 유적 V』.
- 高麗大學校 考古學環經研究所, 2007, 『牙山 葛梅里(Ⅲ地域) 遺蹟 -本文-』, 高麗大學校 考古學環經研究所 研究叢書 第26輯.
- 高麗大學校發掘調查團 · 湓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 1994, 『湓沙里 第5卷』.
- 高麗文化財研究院, 2010, 『加平 項沙里 遺蹟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예정구간 문화재 발굴조사(B지구)-』, 學術調查報告書 第52輯
- 公州大學校博物館, 2005, 『舒川 芝山里 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05-01.
- 公州大學校博物館, 2007, 『牙山 葛梅里(I 地域) 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07-03.
- 국강고고학연구소, 2015, 『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강문 강문동 신라토성』, 국강유적조사보고 제 13책.
- 국강고고학연구소, 2018, 『강릉 강문동 136-3번지 유적』.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일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I』.
- 국립경주박물관, 1999, 『경주 황성동 524-9번지 용해로적』.
- 국립경주박물관, 2000, 『경주 황성동 유적 I, II -'가'지구』.
- 국립경주박물관, 2017, 『경주 황성동 886-5번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광주박물관 · 한신대학교박물관, 1993, 『무등산 금곡동 - 조선시대 철 및 철기생산유적』.
- 국립김해박물관, 2001, 『밀양사촌제철유적』.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나주 북암리유적 I 1~3차 발굴조사 보고서』.
- 國立文化財研究所, 1995, 『淸原 米川里 古墳群』.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風納土城 I -현대연합주택 및 1지구 재건축 부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風納土城 XI-풍납동 197번지(舊미래마을) 시굴 및 발굴조사 보고서1- 圖版』.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風納土城 XⅢ-풍납동 197번지(舊미래마을) 발굴조사 보고서2』.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風納土城 XⅣ-풍납동 197번지(舊미래마을) 발굴조사 보고서3』.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風納土城 XⅤ-풍납동 197번지(舊미래마을) 발굴조사 보고서4』.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風納土城 XⅥ-성벽의 축조공정 및 연대 규명을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

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 扶餘 凌山里寺址發掘調査 進展報告書』, 國立扶餘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8冊.

국립부여박물관, 2006, 『백제의 공방』.

國立中央博物館, 1982, 「馬場里 住居址 出土遺物」, 『中島-進展報告III』.

國立中央博物館, 1998, 『驪州 淵陽里遺蹟』,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29冊.

국립중앙박물관, 1998, 『동래낙민동패총』.

國立中央博物館, 2014, 『華城 旗安洞 製鐵遺蹟 -홍익대학교 실습부지내 학술발굴조사보고서-』.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09, 『忠州 塔坪里 遺蹟(中原京 추정지) 시굴조사 보고서』,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 1冊/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3, 『忠州 塔坪里遺蹟(中原京 추정지) 발굴조사 보고서 -本文-』,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 12冊.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8, 『충주 칠금동(392-5번지 일대) 제철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제19책.

國立淸州博物館, 2004, 『鎭川 石帳里 鐵 生産遺蹟』, 學術調査報告 第9冊.

군산대학교박물관 외, 2019, 『장수군 제철유적 발굴조사 학술용역 장수 대적골, 신전리 제철유적』.

김동현, 1984, 『고성동외동패총, 상노대도』, 동아대학교박물관.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외, 2011, 『김제시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김제 장흥리 은곡 제철유적』

대동문화재연구원, 2015, 『문경 신기동 740유적-문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시, 발굴조사보고서-』.

대동문화재연구원, 2019, 『달성 우록리 161-2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08, 『양산 소토리 유적-양산 소토리공장신축부지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외, 2010, 『부산 노포동 산84-1번지 유적-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 건설구간 내 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4,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문화유적발굴조사 개요」.

동아대학교 박물관 외, 2005,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내 가주, 두동, 마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동아대학교박물관, 2000, 『양산물금유적』.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8, 『牙山 北水里遺蹟』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發掘調査 報告書

第107輯.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외, 2007, 『고성 소을비포성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외, 2011, 『김해 하계리 제철유적』.
- 두류문화재연구원, 2016, 『밀양 임천, 금곡 유적-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A, B지구 [금곡 제철유적]』.
-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 1994, 『漢沙里 第2卷』(成均館大學校發掘調查團·漢陽大學校發掘調查團).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查團, 1994, 『漢沙里 第3卷』(崇實大學校博物館).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나성-북나성 VII -치성벽 내측조사-』(財)百濟古都文化財團發掘調查研究報告 第55冊.
-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0, 『동래북천동내성유적』.
- 삼강문화재연구원, 2014, 『밀양 임천리 금곡제철유적 - 밀양역~삼랑간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발굴조사(C, D구역)-』.
- 三江文化財研究院, 2017, 『平澤 佳谷里 遺蹟 -진위2 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부지 내 시·발굴조사보고서-』.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5, 『청송 구천지구 저수지 독높이기사업 부지 내 청송 화장리 유적』.
-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9, 『경주 황성동 대림 e-편한세상 주변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9, 『상주 용곡지구 배수개선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 서울대학교박물관 외, 2013, 『시루봉보루 II』.
서울대학교박물관 외, 2000,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외, 2002, 『아차산 시루봉 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외, 2009, 『龍馬山 第2堡壘 -發掘調查報告書』.
서울大學校博物館, 1986, 『石村洞3號墳東쪽古墳群 整理調查報告』.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 『광주 곤지암리 I 유적』.
- 서해문화재연구원, 2017, 『양평 양수리 유적II -양평 양서면 양수리 578 · 539번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서해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보고서 제 55집.
- 成均館大學校博物館, 2008,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상석정마을 발굴조사보고서(철기시대 전기편)』, 成均館大學校博物館 第三十一輯.

- 성림문화재연구원, 2005, 『경주 건천 용명리 제철유적』.
- 성림문화재연구원, 2009, 『경주 용강동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 성림문화재연구원 외, 2012, 『울진 신울진원전건설부지내 유적 조사Ⅲ구역 7지점 울진 덕천리 삼국시대 생활유적』.
- 순천대학교박물관, 1996, 『여천 선소 풀뭇간 발굴조사보고서』.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0, 『水原 西屯洞 遺蹟』.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외, 2009, 『경주 외동 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내(I 구역) 경주 문산리유적 I』.
-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경주 황성동 887-8번지 유적, 왕경유적 V』.
-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 『양산 물금 동부-서부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 유적 시, 발굴조사 보고서』.
-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13, 『횡성 읍하리유적1-횡성 문화체육공원 조성 부지 내 유적발굴조사보고서-』.
- 영남대학교박물관 외, 1999, 『시지의 문화유적Ⅷ-취락지』.
-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외, 1999,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 I』.
- 영남문화재연구원 외, 2000,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 II』.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구간내 경주 덕천리유적 V -삼국시대 이후-』.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대구 이사이폴리스 조성사업부지내 대구 봉무동유적Ⅳ』.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송림리 대가야 토기가마 유적』.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東海 松亭洞遺蹟 I -동해 송정동 958-8번지 소규모주택 신축부지 발굴조사보고서-』, 學術調查報告 第8冊.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東海 松亭洞遺蹟 II -1039-5, 851-6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調查報告 第24冊.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東海 望祥洞遺蹟 II -동해 망상동 176-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調查報告 第36冊.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東海 松亭洞遺蹟 III -동해 송정동 도로개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調查報告 第32冊.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華川 原川里遺蹟』, 學術調查報告 第54冊.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襄陽 銅湖里遺蹟 -양양 개발촉진지구(여운포~송전간) 개발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調查報告 第64冊.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橫城 邑下里遺蹟 -횡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學術調查報告 第 63冊.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6, 『春川 栗文里遺蹟Ⅱ-춘천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확포장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學術調查報告 第 69冊.
- 우리문화재연구원 외, 2011, 『김해 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지구 내 김해 여래리유적』.
- 우리문화재연구원 외, 2017, 『하동 영호남 화합의 광장 조성부지 내 하동 탑리 유적』.
-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 매곡동유적 I 지구』.
-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 천상리평천유적』.
-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부록. 울산 달천유적-2차 발굴조사, 울산 달천유적 1차 발굴조사』.
-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 달천유적 1차 발굴조사』.
-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 둔기리유적』.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달천유적 3차발굴조사』.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입암리유적』.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중산동798-2유적』.
-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4,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5, 『고창 아산댐수몰지구 발굴조사보고서』.
- 이호관·조유전, 1976, 「성곽 및 북구패총 발굴조사 보고」, 『마산외동 성산패총 발굴조사보고서』.
- 전남문화재연구원 외, 2010,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광양 도월리유적 I』.
- 전북대학교박물관 외, 2010, 『상운리Ⅲ-생활유적 및 분묘, 종합고찰-』.
- 중부고고학연구소, 2018, 「이천~충주 철도건설공사부지(장천리① ~ 봉방동)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충주 용교리 유물산포지② (발굴)-」.
- 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淸原 五松生命科學産業團地內 淸原 蓮提里遺蹟』, 發掘調查報告 第144冊.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충주 본리, 영평리, 완오리유적』.
- 中央文化財研究院, 2010, 『南陽州 長峴5地區 住宅新築敷地 內 南陽州 長峴里遺蹟』.
- 中央文化財研究院, 2013, 『忠州 塔評理 彈琴臺 漕艇競技場 造成敷地內 忠州 塔評理遺蹟』, 發掘調查報告 第201冊.
-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진천 송두리유적 II』, 發掘調查報告 第 277冊.

-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調査報告叢書 第62冊.
-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淸州 山南洞 42-6番地 遺蹟 -附-淸州 山南洞 33-7番地 遺蹟-』, 調査報告叢書 第80冊.
-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忠州 彈琴臺土城 I -2007年度 發掘調査 報告-』, 調査報告書 第81冊.
- 中原文化財研究院, 2011, 『曾坪 柵城山城 -4次(北城 1次) 發掘調査 報告書-』, 調査報告書 第167冊.
- 中原文化財研究院, 2011, 『曾坪 二城山城 I -南城 南水門址-』, 調査報告書 第117冊.
- 中原文化財研究院, 2012, 『KM그린(로얄포레)CC 造成事業敷地內 忠州 大花里 遺蹟』, 調査報告叢書 第132冊.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4, 『충주 문성리 동촌CC 조성사업부지 내 충주 가신리-문성리 유적』, 조사보고총서 제162책.
- 中原文化財研究院, 2018, 『淸州 테크노폴리스 造成事業敷地 內 淸州 松節洞 遺蹟 IX』, 淸州테크노폴리스 發掘調査報告書 9冊, 中原文化財研究院 調査報告叢書 第188冊
- 중원문화재연구원 외, 2014, 『충주 문성리 동촌CC 조성사업부지 내 충주 가신리, 문성리 유적』.
- 중원문화재연구원 외, 2012,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건설공사(4공구) 구간내 충주 화석리, 문성리 유적 I』.
- 최몽룡, 1976, 「서남구패총 발굴조사보고」, 『마산 외동 성산패총 발굴조사보고서』.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외, 2005, 『대전 계족산성』.
- 忠北大學校博物館, 1983, 『忠州댐 水沒地區文化遺蹟發掘調査略報告書 考古·古墳分野(I)』.
- 忠北大學校博物館, 1984, 『忠州댐 水沒地區文化遺蹟發掘調査略報告書 考古·古墳分野(I)』.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진천 구산리 제철유적』, 발굴조사보고 제7책.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淸州 테크노폴리스 造成事業敷地 內 淸州 松節洞 遺蹟 X』, 淸州 테크노폴리스 發掘調査報告書 第10冊.
- 한강문화재연구원 외, 2017, 『대구 연경동 취락유적』.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춘천 우두동 유적』, 유적조사보고 제 66책.
- 한국고고학환경연구소 외, 2015, 『사적 제 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흥련봉 1·2보루』, 한국고고학환경연구소 연구총서 제66집-』.
- 한국고고학환경연구소 외, 2018, 『익산 광암리, 동촌리 유적-본문3, 고찰 분석-』.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외, 2011, 『창원 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부지내 창원 봉림동유적(I)』.

한국문화재연구원 외, 2012, 『창원 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부지내 창원 봉림동유적(Ⅱ)』.
한국문화재연구원 외, 2012, 『부산 민락동 주택 재개발 사업단지 내 부산 민락동 포이진유적』.

韓國文化遺産研究院, 2012, 『楊州 玉井洞 遺蹟』, 韓國文化遺産研究院 學術調查報告書 第20冊.

韓國文化遺産研究院, 2012, 『烏山 內三美洞 遺蹟』, 韓國文化遺産研究院 學術調查報告書 第19冊.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경주 황성동 유적-537-4, 535-8번지-』.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5, 「하남 하사창동 64-2, 344번지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강원1-』, 學術調查報告 第275冊.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2001, 『경주시 황성동 537-2 임대아파트 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2002, 『경산 중소기업 제3연수원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시,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2004, 『경주 황성동 535-5번지 공동주택 예정부지 문화유적 시,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2005, 『경주 황성동 유적Ⅲ -강변로 3-A공구 개설구간내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2005, 『경주 황성동 유적Ⅳ -강변로 3-A공구 개설구간내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2007, 『경주 황성동 유적Ⅴ -황성동 886-1번지 공동주택신축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 2008, 『울산 대밀, 양수정, 상삼정, 삼정리유적 -울산권 광역상수도 (대곡댐)사업 편입부지내 5차 발굴조사-』.

韓國文化財財團, 2016, 「1. 양평 양수리 770-7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 -경기2-』, 學術調查報告 第305冊.

韓國文化財財團, 2016, 「6. 동해 송정동 848-16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 -경기 5·강원1-』.

한국문화재재단, 2017, 「하남 하사차동 381-1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서울·경기』, 學術調查報告 第327冊.

한국문화재재단, 2017, 「하남 하사차동 381-2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서울·경기』 學術調查報告 第327冊.

한국문화재재단, 2017, 「경주 천군동 543번지 유적, 경주 천군동 543-1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Ⅶ -경북5-』

한국문화재재단, 2017, 「황성동 885-7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Ⅷ -경북8-』.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8, 『淸州 테크노폴리스 造成事業敷地 內 淸州 松節洞 遺蹟 II -4·5地點-』, 淸州 테크노폴리스 發掘調査報告書 第2冊, 韓國先史文化研究院 第85冊.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8, 『淸州 테크노폴리스 造成事業敷地 內 淸州 松節洞 遺蹟 VIII -本文-』, 淸州 테크노폴리스 發掘調査報告書 第8冊, 韓國先史文化研究院 第86冊.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외, 2014, 『漣川 瓠蘆古壘IV (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토지주택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30집.
- 韓南大學校中央博物館, 2006, 『鎭川 三龍里 · 山水里 土器 窯址群』.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2, 『춘천 중도 유적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하중도 A지구-』, 한백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제 36책.
- 한병삼·정징원, 1976, 「동구패총 발굴조사보고」, 『마산외동 성산패총 발굴조사보고서』.
- 한성문화재연구원, 2020, 『홍천 태학리 유적 II -홍천 한국 기동헬기 후속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36책.
- 한신대학교박물관, 2003, 『風納土城 III-삼화연립 재건축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보고-』, 한신大學校博物館叢書 第15冊.
-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風納土城 IV-慶堂地區 9號 遺構에 대한 發掘調査- 圖板』, 한신大學校博物館叢書 第 19冊.
- 한신대학교박물관, 2006, 『風納土城 VII-慶堂地區 廢棄場에 대한 發掘調査-』, 한신大學校博物館叢書 第24冊.
- 韓神大學校博物館, 2018, 『龍仁 古林洞 原三國·百濟 聚落』, 한신대학교 박물관총서 제47책.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2, 『연천 삼곶리 유적 -군남 홍수조절 건설사업 문화재 시 · 발굴 조사(D F구역)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총서 21집.
- 한양문화재연구원, 2018, 『楊平 兩水里 537-1번지 遺蹟 -양평 양수리 537-1번지 빌라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한양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서 第5冊
- 한얼문화재연구원, 2012, 『서울 우면동 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가곡리유적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발굴조사보고 129.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6, 『증평, 화성리 산37-2 번지 공장신축부지 내 증평 화성리유적』. 湖西文化遺産研究院 2016-13冊.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淸州 테크노폴리스 造成事業敷地 內 淸州 松節洞 遺蹟 XI』, 淸州 테크노폴리스 發掘調査報告書 第11冊, 湖西文化遺産研究員 第35冊.

호서문화재연구원, 2019, 『대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부지 보은 대원리 유적』.

* 첨부 : 3. 자문의견서

의 견 서

고대 제철도구 집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출토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성자료에 보이는 일부 유물(예 : 강릉 강문동토성 출토 송풍관과 석재 단야 망치는, 병산동유적 출토 집게)은 고고학적 맥락과 유물을 실전한 경험을 근거로 하면 제철도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해 송정동유적의 경우 송풍관을 도가니로 잘못 보고된 예가 있고 내화물이 송풍관으로 잘못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춘천 근화동유적에도 대형 송풍관으로 잘 못 보고된 예가 있으며 가평 향사리 유적의 송풍관도 실전한 바에 의하면 제철용 송풍관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보고된 유물중에 도가니로 보고된 대표적인 유적으로 동해 송정동과 원주 가현동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전자는 비철 금속 도가니로 판단되고 후자는 일상용 토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유물의 시기에 있어서도 원삼국~삼국시대, 마한~삼국시대 등으로 시기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영동지역 출토 제철도구 대부분은 삼국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부지역 몇몇 유적에서 보고된 것 중에 면밀한 관찰을 통하여 제철도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ppt 발표를 통하여 간략히 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짧은 기간, 적은 예산으로 현재 제시된 자료를 집성하였다는 것은 웬만한 열정없이 수행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성된 자료는 차후,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목록과 도면, 해당 유구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집이 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자문위원 심재연



의견서

- * 우리나라는 초기철기시대에 철이 도입된 이후 삼국시대 무렵 철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경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러한 철 생산을 위한 도구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가 집성되어 분석된 바가 없어 금번 연구가 갖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 * 집성시기와 관련하여 고대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후 중세 것들도 집성할 필요가 있으며, 고고학 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도면과 사진 자료 집성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 * 송풍관은 가능하면 개체수를 적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유적 시기 구분 : 현재 원삼국-삼국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연구팀에서 기준을 정하여 원삼국과 삼국 괄호 안에 세부 시기 등을 적어주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수집 자료 활용 : 철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이 금번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생산된 자료를 포함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2020년 12월 02일

자문위원 : 성경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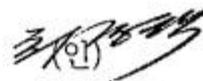
의견서

한신대학교박물관에서 수행 중인 '제철도구 자료 집성 학술 연구'는 4,200여 점에 달하는 제철도구 자료를 집성하였는데, 그동안 산발적으로 조사되어 관리되고 연구되어 온 자료를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의 연구와 조사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성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는 제철 도구 자료만 집성한 것으로 향후 한반도 제철유적 전체를 대상을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이번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제철 도구 자료집 또는 도록 등과 같은 형태의 연구서 간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성과를 정리한 DB는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면 관련 분야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2월 02일

자문위원 : 최 종 택



자문회의 의견서

사업명 :		자문내용 :	
자문위원	성명 : 이영구	소속 : 당진 민회 새장터	
	성명 : 이은환	소속 : 아진 민회	
회의일자 :			
자 문 회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의 의견으로는 대장간 도가 아닌, 금속세공 도구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빙치늪 언덕 언덕이나 큰정거리 생평언덕이 아니라 정은 정거리 세공계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 빙치늪 뒤쪽의 집에는 자국 부분 끼워 넣기 식으로 보이며, 이때에도 유사한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 석재 언덕과 빙치늪 언덕도 자국 가능성은 있으나 아진리 가까운 선원사네가 신빙성 있다. · 최근 하동동내 창고 내부에 끼워 넣기 식으로 사용하는 빙치늪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 이영구 (서명) 이은환 (서명) 이은환 (서명)			

